

프랑스의 디지털 기반 상호문화 교육*

-ARI 및 ARIMV 프로젝트 분석-

장나나
(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프랑스 상호문화 교육의 이론적 배경 및 디지털 전환
 - 2.1. 상호문화 교육의 개념과 목표
 - 2.2. 유럽 평의회와 프랑스의 상호문화 교육 정책
 - 2.3.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상호문화 교육
3. ARI 프로젝트: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문화 간 만남 자서전
 - 3.1. ARI 프로젝트의 개념과 교육적 목표
 - 3.2. 디지털 자서전을 활용한 학습 과정
 - 3.3. 교육적 성과 및 한계
4. ARIMV 프로젝트: 시각 미디어와 디지털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문화 교육
 - 4.1. ARIMV 프로젝트의 도입 배경과 특징
 - 4.2. 디지털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과 학습 과정
 - 4.3. ARIMV의 교육적 성과 및 과제
5. 디지털 기반 상호문화 교육 모델의 발전 방향
 - 5.1. 교육 전문가를 위한 온라인 자가 학습 과정 활용
 - 5.2. 디지털 시민 교육과의 연계 가능성
6. 결론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4267). 이 논문은 2021년 5월 22일 열린 다문화사회와 교육학회 제1차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럽평의회에서 제안하여 프랑스에서 시행된 ARI와 ARIMV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상호문화 교육 모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RI프로젝트는 학습자가 디지털 자서전을 작성하며 개인적 문화 경험을 반영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ARIMV 프로젝트는 시각 미디어와 디지털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교육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프로젝트의 개념적 배경과 교육적 목표를 고찰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호문화 교육 효과 및 한계를 분석한다. 또한, 교육 전문가 대상 온라인 자가 연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최근 논의 중인 디지털 시민 교육으로서 ARI via Internet(인터넷 기반 문화 간 만남 자서전) 등 디지털 기반 상호문화 교육 모델의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상호문화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연구 과제를 논의하고, 상호문화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제어| 상호문화 교육, ARI 프로젝트, ARIMV 프로젝트, 디지털 상호작용, 상호문화 역량, 디지털 시민교육, 프랑스의 상호문화 교육 정책

1. 서론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은 교육 분야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과 프랑스는 상호문화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왔다. 특히, 디지털 환경의 발전과 함께 문화 간 만남 자서전(Autobiographie de Rencontres Interculturelles, 이하 ARI)과 시각적 미디어 기반 문화 간 만남 자서전(Autobiographie de Rencontres Interculturelles via les Médias Visuels, 이하 ARIMV) 프로젝트는 상호문화 교육을 위한 대표적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들 디지털 기반 교육 모델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문화 간 이해를 심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ARI와 ARIMV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이들 모델

이 갖는 교육적 성과와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상호문화 교육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교육 전문가를 위한 온라인 자가 연수 과정과 디지털 시민 교육을 포함한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여, 상호문화 교육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ARI와 ARIMV는 상호문화 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둘째, 디지털 기술이 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문화 간 이해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셋째, ARI 및 ARIMV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기반 교육 모델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넷째, 교육 전문가를 위한 온라인 자가 연수 과정과 디지털 시민 교육은 상호문화 교육 모델과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문헌 분석과 연수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유럽평의회 및 프랑스 교육부의 공식 문서와 관련 연구 논문을 주요 자료로 활용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프랑스 상호문화 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디지털 전환 과정을 분석하며, 상호문화 교육의 개념, 목표, 및 정책적 접근 방식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ARI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서전을 활용한 상호문화 교육 모델과 그 교육적 효과를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ARIMV 프로젝트의 시각 미디어 및 디지털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 방식을 검토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디지털 기반 상호문화 교육 모델의 발전 방향으로 온라인 자가 학습 과정 및 디지털 시민 교육과의 연계 가능성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상호문화 교육의 효과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2. 프랑스 상호문화 교육의 이론적 배경 및 디지털 전환

2.1. 상호문화 교육의 개념과 목표

프랑스의 상호문화 교육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사회 구성원 간 상호 이해와 평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상호문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과 차별을 완화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교육 환경에서 소속감을 느끼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이 강조된다.

첫째, 문화적 차이의 존중이다.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타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둘째, 상호 소통과 협력이다. 학습자 간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상호문화적 환경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정체성 형성의 다원성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단일한 문화적 배경에 의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관계 속에서 다층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교육적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상호문화’ 개념은 교류와 만남을 통해 이질성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로즈마리 샤브, 리오넬 파비에, 스와직 펠리시에 공저, 2019: 24).

이와 함께, 상호문화 교육은 교사 및 교육자들에게 문화간 역량(compétences interculturelles)을 요구한다. 즉, 교육자는 학습자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기 표현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문화 간 차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 교육 정책은 유럽평의회(CECRL, 2001)의 ‘살아 있는 언어(Langues vivantes)’ 개념과 유럽 시민 언어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한 교육 도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유럽공통참조기준(CECRL, 2001)과 언어 역량 유럽 포트폴리오(Coste, 1997: 133-134)를 통해 상호문화 및 다중언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이는 학습자의 언어적·문화적 역량 강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2.2. 유럽 평의회와 프랑스의 상호문화 교육 정책

2005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리스본 전략(*la stratégie de Lisbonne*)을 통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전략에서 강조된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상호문화 대화(*dialogue interculturel*)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 즉, 상호문화적 이해와 대화 능력이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8년 유럽평의회와 유럽의회는 유럽 상호문화 대화의 해를 공식적으로 공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2007-2013년 동안 시민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정책의 가시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¹⁾

프랑스는 이러한 유럽 차원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2009년과 2013년 각각 ARI와 ARIMV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였다. 이들 프로젝트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적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상호문화적 접근 방식을 교육과정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데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프랑스는 정책적 차원에서 상호문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간 상호작용을 통한 공감 능력과 비판적 사고의 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예컨대, 디지털 기반 이전에도 사진을 활용한 수업 연구에서 정체성과 자서전적 글쓰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인물 사진을 선택한 뒤, 1인칭 또는 3인칭 시점으로 신상 정보와 전기를 작성하는 글쓰기 활동을 수행하였다. 1인칭 시점은 감정이입을 통해 자기 표현을 촉진하고, 3인칭 시점은 새로운 방식의 자기 탐색을 유도하는 효과를 보였다(Yaiche, 2002: 20).

1) <https://eur-lex.europa.eu/FR/legal-content/summary/european-year-of-intercultural-dialogue-2008.html#>

2.3.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상호문화 교육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교육의 확산에 따라, 프랑스 교육부는 CNED(프랑스 국립 원격 교육 센터)를 통해 기존의 ARI 및 ARIMV를 활용한 비대면 상호문화 교육 프로젝트를 개발·운영해왔다. 이러한 흐름은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와 시각 자료는 상호문화 교육에서 핵심적인 교육 도구로 기능한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문화적 차이와 맥락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기존의 텍스트 중심 교육이 전달하기 어려운 비언어적·시각적 요소를 경험함으로써 학습의 몰입도가 향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방식은 학제 간 이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더욱이, 이미지, 영상, 애니메이션과 같은 시각 자료는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경험하고 분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감수성과 상호문화적 역량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Moirand(1994: 24-30)는 미디어 시각 자료의 교육적 장점으로 상호작용성과 인지적 경험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자료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습자가 새로운 문화적 배경을 탐색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제공되는 상호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여 교육적 접근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개별 학습자의 학습 속도와 스타일을 존중하는 맞춤형 학습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Porcher(1994: 191)는 미디어 자료가 학습자의 사고방식과 인식 체계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미디어적 아비투스(habitus médiatique)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미디어 자료가 특정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획일화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다양한 시각적·문화적 경험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디지털 미디어의 교육적 활용이 학습자에게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시각 자료를 활용한 상호문화 교육은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문화 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ARI 및 ARIMV와 같은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추하고, 다른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이를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보다 심층적인 상호문화적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호문화 교육은 기존 교육 모델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보다 포용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3. ARI 프로젝트: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문화 간 만남 자서전

3.1. ARI 프로젝트의 개념과 교육적 목표

ARI 프로젝트는 유럽평의회 민주적 참여 총괄부(DGII) 산하 교육 서비스에서 개발한 상호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마이클 비람, 마틴 바렛, 줄리아 입그레이브, 로버트 잭슨, 마리아 델 카르멘 멘데스 가르시아 등의 주도로 개발되었으며, 아이스 부캐넌-바로우, 리아 다브체바, 피터 크라프, 장미셸 르클레르크 등이 기여하였다. ARI는 공식 교육 환경(초·중등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비공식 교육 환경에서도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역량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적은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 간 경험을 구조화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학습자는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영화, 잡지, 인터넷 등 시각적 매체를 통해 접한 문화 간 만남을 기록하고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차이를 해석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은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문화적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함양

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ARI 프로젝트는 다양한 언어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등 다국어 버전으로 제공된다. 교육적 필요와 학습자의 연령에 따라 두 가지 버전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표준 버전은 성인 및 청소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문화 간 만남에 대한 심층적인 성찰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둘째, 어린이용 버전은 읽기와 쓰기에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학습자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 간 경험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결론적으로, ARI 프로젝트는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성찰하고, 타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이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교육 도구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보다 포용적인 태도로 상호문화적 소통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된다.

3.2. 디지털 자서전을 활용한 학습 과정

ARI는 학습자가 특정한 문화 간 만남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문화 간 만남의 선택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외국인과의 경험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의 만남을 포함하여 특정한 경험을 선정한다. 둘째, 세부 탐구 과정에서는 다양한 질문을 활용하여 해당 만남의 여러 측면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여행 경험이 아니라 특정 인물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적 차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셋째, 반성적 사고 유도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가치관, 태도, 행동에 미친 경험의 영향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심화한다. 넷째, 서술 및 공유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문서화하고 이를 동료 학습자와 공유함으로써 상호문화적 소통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ARI는 학습자의 문화 간 경험 성찰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

한 디지털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주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문화 간 만남 자서전인데 표준 버전과 어린이용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별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둘째, 진행자를 위한 지도서인데 교사 및 교육자를 위한 실천적 가이드로, 학습지도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이론 문서인데 ARI 프로젝트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로, 학습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넷째, 고급 학습자를 위한 간략화된 이론 문서인데 심화 토론 및 논의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결론적으로, ARI는 디지털 학습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학습자가 온라인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원격 학습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활용 가능성이 높다.

3.3. 교육적 성과 및 한계

ARI는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적 경험을 반추하며 상호문화적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적인 교육 도구이다. 이는 갈리송(Galisson, 1997:145)의 상호문화 연구 개념과도 연결되는데, 그는 “타자와의 다름을 인식하는 과정이 낯선 것과 친숙해지는 경험을 통해 개인의 시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ARI는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학습자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ARI의 교육적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기 성찰 기반 학습을 촉진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문화 간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반추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이해를 증진하며, 문화적 만남이 가치관, 태도, 행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성찰적 사고를 강화한다. 둘째, 상호문화적 이해를 증진한다. 학습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반추하며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또한 직접 경험뿐만 아니라 미디어(영

화, 인터넷 등)를 통한 간접적 문화 경험까지 포함하여 학습의 폭을 확장할 수 있다. 셋째, 교육적 적용 가능성이 높다. 정규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비형식 교육, 기업 연수, 난민 및 이민자 교육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학습자가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포용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ARI에는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개별적 경험에 대한 의존성이다. ARI는 학습자의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문화 간 만남의 기회가 제한적인 학습자에게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상 문화 체험, 사례 기반 학습 등의 보완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자의 역할과 전문성 요구이다. ARI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교육자가 상호문화 교육과 교수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자의 역량에 따라 학습자의 성찰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자 대상 연수 및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셋째, 디지털 도구의 접근성과 활용 한계이다. 인터넷 접근성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ARI의 디지털 자료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디지털 학습만으로는 학습자 간 직접적인 문화 교류와 충분한 상호작용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면 활동과의 조화로운 설계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ARI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상호문화적 역량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교육 도구이다. 다만,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배경과 교육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며, 교육자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디지털 확장은 원격 학습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학습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과 경험 공유를 병행하여 보다 심층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ARIMV 프로젝트: 시각 미디어와 디지털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문화 교육

4.1. ARIMV 프로젝트의 도입 배경과 특징

ARIMV 프로젝트는 ARI의 개념을 확장한 디지털 미디어 기반 문화 간 만남 자서전으로, 학습자가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적 문화 경험을 분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프랑스어와 영어로 제공되는 이 도구는 유럽 이사회 백서(5.3절)에서 제시한 ‘동등한 존엄 속에서 함께 살기’ 및 ‘문화 간 역량을 배우고 가르치기’ 개념을 반영하여, 문화적 감수성을 개발하는 학습 방법론으로 도입되었다.

ARIMV는 ARI와 마찬가지로 문화 간 경험을 다루지만, 직접 경험보다는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한 문화적 만남에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타문화에 대한 인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시각적 자료가 고정관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상호문화적 역량을 심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ARIMV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경험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적 경험과 연결하여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다양한 문화적 표현 방식을 분석하여 문화 간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을 높여 교육자와 학습자가 미디어 자료를 공동 분석하며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상호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ARIMV의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성찰을 기반으로 학습자가 미디어 경험을 기록하고, 가치관 및 태도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미디어에서 재현된 문화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문화적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상호문화적 이해를 촉진한다. 셋째, 영화, TV 프로그램, 인터넷 콘텐츠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반응을 고려한 교육적 접근을 실현한다. Moirand(1994: 24-30)에 따르면, 시각 자료는 학습자에게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ARI 및 ARIMV는 학습자가 문화 간 경험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도구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문화적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는 ARI 및 ARIMV 모델을 한국 교육 환경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상호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4.2. 디지털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과 학습 과정

ARIMV의 학습 과정은 학습자가 미디어에서 선택한 시각적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이미지는 특정한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며, 학습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타문화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파업자의 보도 사진, 홈리스 사진, 힙합 아티스트의 뮤직 비디오, 종교 의례 장면, 아시아 의사를 묘사한 픽션 영화, 외국어 교과서 삽화, 민속춤 유튜브 영상, 패럴림픽 포스터, 관광 브로셔 등이 있다.

학습자는 영화 장면, 뉴스 보도, 광고, 다큐멘터리 스틸 컷 등의 시각 자료를 분석하면서 해당 이미지가 자신의 문화적 이해 및 감정적 반응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상호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정의적 변화를 경험한다(Hirschsprung, 2005: 109). ARIMV는 학습자가 특정 시각 자료를 선택한 후, 질문을 통해 해당 이미지가 불러일으키는 감정, 사고 과정, 그리고 문화적 인식을 되돌아보고 미래적 전망을 도출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층과 학습 환경에 적합한 자료로 구성되며, 표준 버전은 개인 학습뿐만 아니라 교사 또는 동료와의 공동 활용도 가능하다. 어린이용 버전은 성인의 지도하에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ARIMV의 두 가지 버전 모두 보조 자료와 지원 문서를 포함한다.

해당 문서에는 프로그램의 개념적 기초와 학습 목표를 설명하는 진행자용 노트가 포함되어 있어 학습 과정의 효과성을 높인다. 또한, 피드백 양식은 ARIMV의 지속적인 개선에 기여하며, ‘맥락, 개념 및 이론’ 문서는 문화적 개념과 이론적 토대를 설명함으로써 진행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러한 자료들은 심리학 및 사회학적 관점에서 문화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RIMV는 특정 시각 자료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질문을 탐구하고 답변을 구성하도록 안내한다. 학습자는 이미지가 불러일으키는 감정과 반응, 제작자의 의도 및 메시지, 문화적 교훈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 활동을 성찰하는 기회를 갖는다.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개인 학습 도구로서 학습자가 자기 성찰 및 가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진행자와의 대화를 통한 공동 평가로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심층적 논의를 유도한다. 셋째, 그룹 토론 및 협력 학습을 촉진하는 교육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ARIMV는 학습자의 문화 간 경험을 확장하고, 상호문화적 감수성과 상호문화적 이해를 증진하는 의미 있는 학습 도구로 기능한다.

4.3. ARIMV의 교육적 성과 및 과제

ARIMV 기반 학습 과정은 학습자에게 다양한 교육적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문화적 만남의 분석은 학습자의 문화적 민감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미디어 속 타문화 재현 방식에 대한 비판적 해석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이 과정은 상호문화 역량의 핵심 요소인 공감 능력과 문화적 개방성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이다. 학습자는 특정 미디어 자료를 분석하며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비교·대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성찰을 심화할 수 있다.

그러나 ARIMV의 교육적 한계 또한 존재한다. 첫째,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과 경험 수준에 따라 미디어 자료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교수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편향된 시각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 둘째, 미디어 콘텐츠 선정 과정에서 특정 문화적 고정관념이나 왜곡된 이미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비판적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호문화적 이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교육자는 학습자가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균형 있게 해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내와 토론을 제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ARIMV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학습자의 문화 간 경험을 확장하고, 문화적 정체성과 감수성을 함양하는 유용한 학습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효과적인 교육적 활용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교수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미디어 자료 선정 및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을 고려한 교육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5. 디지털 기반 상호문화 교육 모델의 발전 방향

5.1. 교육 전문가를 위한 온라인 자가 학습 과정 활용

본 과정은 유럽평의회가 개발한 디지털 연수 프로그램으로, 교육자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ARI 및 ARIMV의 이론적 기초와 활용 방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교사 양성과 교육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과 활동을 제안한다.

주요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자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학습 활동을 설계하고 실습한다. ARI 및 ARIMV의 이론적 배경과 교육적 활용을 탐구하며, 문화 간 성찰을 촉진하는 학습 활동을 개발하고 상호문화 교육 맥락에서의 적용 사례를 분석한다. 둘째,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디지털 도구를 기반으로 한 교육 방법론을 제시한다. 원격 학습 환경에서의 상호문화 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ARI 및 ARIMV를 활용한 온라인 협력 학습과 토론 기법을 적용한다.

본 연수 모듈²⁾은 문화 간 역량의 심화 학습을 목표로 하며, ARI 기반 자기 성찰과 문화 간 인식 확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단계별 학습을 통해 이론적 탐구와 실천적 적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다.

〈표 1〉 연수 모듈 프로그램

번호	모듈명	학습목표	교육방법 및 적용 전략
1	개인 정체성과 문화 간 만남	자기 성찰 과정을 촉진하고 정체성 형성의 개념을 탐구한다.	정체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시각적 분석 ³⁾
2	타인과의 만남을 통한 문화 간 인식 확장	문화적 차이가 개인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개인 정체성과 문화적 영향에 대한 탐구 ⁴⁾
3	문화 간 만남의 개념	ARI 틀을 기반으로 개인 경험을 반성적으로 고찰한다.	문화 간 만남의 개념 및 정의 탐구 ⁵⁾
4	문화 간 만남을 위한 역량	문화 간 역량의 개념과 요소를 탐구한다.	문화 간 태도 및 소양 ⁶⁾
5	ARI의 구조	ARI의 구조와 진행 방식을 분석하고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ARI의 아홉 개 섹션 및 진행 방식 개요 ⁷⁾
6	문화 간 만남 자서전의 실제 적용	ARI 구조를 기반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방법을 탐색한다.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ARI 활용 전략 분석 ⁸⁾
7	자신의 환경에서 ARI 활용하기	ARI의 교육적 유용성을 분석하고 교육 환경 내 적용 방안을 구체화한다.	네 가지 관점을 통한 ARI 분석 및 평가 ⁹⁾

2) <https://www.coe.int/fr/web/autobiography-intercultural-encounters/online-self-study-course-for-educators>

3) 수직적·수평적 영향 요인을 통한 정체성 형성 과정 고찰; ARI의 “나는 누구인가” 섹션을 활용한 자기 서술 활동; 자기 성찰을 통한 학습 과정 점검

4) 문화 간 만남 과정에서의 인식 전환 분석; 다문화적 맥락에서의 경험 공유 및 사례 연구; ARI 기반의 자기 서술을 통한 문화 간 만남 경험 반영

5) 문화 간 상호작용의 주요 요소 분석 (문화 간 만남의 서클); 개인의 ARI 작성 및 사례 연구

5.1.1. 모듈 1: 개인 정체성과 문화 간 만남

가. 정체성 탐색: 자아와 관련된 시각 자료를 분석하고, 개인 정체성 형성 요소를 탐구한다.¹⁰⁾

나. ARI의 자기 서술 과정: '나는 누구인가' 섹션을 통해 정체성을 성찰하고 서술 방식을 비교·분석한다.

5.1.2. 모듈 2: 타인과의 만남을 통한 문화 간 인식 확장

가. 정체성과 문화적 영향: 다층적 정체성과 문화적 요소를 분석한다.

나. 문화 간 관점 변화: 영화 장면 및 사례 분석을 통해 타인의 시각을 탐색하고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사고를 확장한다.

5.1.3. 모듈 3: 문화 간 만남의 개념

가. 문화 간 만남 정의: ARI 개념을 심화하고 학습 기회를 분석한다.

나. 개인 경험의 서술: ARI를 작성하며 문화 간 경험을 성찰한다.

5.1.4. 모듈 4: 문화 간 만남을 위한 역량

가. 태도·지식·기술 분석: 개방성, 공감,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역량을 탐색한다.

나. 행동 지향성: 문화 간 이해를 실천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5.1.5. 모듈 5: ARI의 구조

가. 아홉 개 섹션 구성: 경험 설명→해석→평가의 단계로 진행되며, 학

-
- 6) 지식의 역할과 문화 간 이해의 필요성; 기술의 구성 요소 및 적용 사례 분석; 행동 지향성의 중요성 및 적용 전략
 - 7) ARI의 단계별 구조화 과정 분석; ARI를 활용한 문화 간 역량 개발 사례 연구
 - 8) 학습 과정의 통합 및 확장 방안 모색; 문제 상황에서의 ARI 활용 및 조정 전략; ARI 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적용 방안 검토
 - 9) 교육 현장에 적합한 ARI 실행 계획 수립; 여섯 가지 사고 모자 기법을 활용한 ARI 평가 및 개선 방안 도출
 - 10) 본 과정은 개인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요소(가족, 문화, 종교, 역사적 배경)와 상호작용하는 환경(또래 집단, 직장, 사회적 네트워크, 글로벌 문화)을 구분하여 다룹니다.

습자가 문화 간 역량을 반성적으로 탐구하도록 설계된다.

5.1.6. 모듈 6: 문화 간 만남 자서전의 실제 적용

다.교육 환경에서의 활용: ARI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협력 학습 및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5.1.7. 모듈 7: 자신의 환경에서 ARI 활용하기

가.네 가지 P 분석: 철학적 · 개인적 · 직업적 · 실천적 관점에서 ARI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나.실행 계획 및 평가: 단계별 실행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여섯 가지 사고 모자 기법을 활용해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다.여섯 가지 사고 모자 기법(Six Thinking Hats)¹¹⁾을 활용한 ARI 평가 및 개선: 사고 모자를 활용해 ARI 실행 계획을 점검한다. 여섯 가지 사고 모자를 활용해 ARI 실행의 정보(흰색 모자), 감정(빨간색 모자), 장애물(검은색 모자), 이점(노란색 모자), 창의적 활용(초록색 모자), 전체 전략을 점검(파란색 모자)한다.

5.2. 디지털 시민 교육과의 연계 가능성

2023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유럽평의회 교육부 장관회의에서는 시민교육의 재조명, 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 활용, 위기 상황에서의 교육권 보장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2030년을 목표로 한 새로운 디지털 교육 전략이 출범하였으며, 2025년을 '디지털 시민 교육의 해'로 지정하는 한편, 교육 시스템 내 AI 기술 도입을 위한 규정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존의 문화 간 만남 자서전(ARI)과 시각적 미디어 기반 문화 간 만남 자서전(ARIMV) 프로젝트는 디지털 시민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한 인터넷 기반 문화 간 만남 자서전(ARI via Internet)

11) Six Thinking Hats는 에드워드 드 보노(1985)가 개발한 병렬적 사고 기법으로, 주제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 상호문화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자 간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디지털 도구를 기반으로 한 학습 효과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며, 특히 AI 및 데이터 기반 교육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학습자의 문화 간 역량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고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전은 상호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디지털 시민 교육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교육 정책과 연계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이 요구된다.

6. 결론

본 연구는 프랑스에서 시행된 문화 간 만남 자서전(ARI), 시각적 미디어 기반 문화 간 만남 자서전(ARIMV), 그리고 교육 전문가 대상 온라인 자가 학습 과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상호문화 교육 모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세 가지 접근 방식은 각각 학습자 중심의 문화 간 학습, 시각적 미디어를 활용한 상호작용 강화, 그리고 교사 및 교육 전문가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첫째, ARI 프로젝트는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적 경험을 반성적으로 서술하며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문화적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문화 간 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 반면, ARIMV 프로젝트는 시각적 미디어 자료와 디지털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문화적 의미를 디지털 환경에서 형성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두 프로젝트 모두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상호문화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학습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모델로 기능하였다.

둘째, 교육 전문가 대상 온라인 자가 학습 과정은 교사 및 교육자들이 디지털 기반 상호문화 교육 방법론을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ARI 및 ARIMV 프로젝트와 연계된 온라인 연수 과정은 교육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 간 학습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수 과정이 교사의 상호문화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며, 학습자의 문화적 민감성을 높이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세 가지 교육 모델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ARI 프로젝트의 경우, 학습자의 자기 성찰 능력과 디지털 서술 능력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교수적 지원이 요구된다. ARIMV 프로젝트는 디지털 미디어의 해석이 학습자의 배경지식과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보다 정교한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 전문가 대상 온라인 자가 학습 과정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방식이지만, 연수 과정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작용 요소와 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넷째, ARI 및 ARIMV 프로젝트, 그리고 교육 전문가 대상 온라인 학습 과정은 디지털 시민 교육과의 연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유럽평의회 의 최근 교육 정책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 간 소통과 상호문화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세 가지 교육 모델은 이러한 방향성과 부합한다. 특히, ARI via Internet과 같은 온라인 기반 문화 간 학습 도구는 원격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접목될 가능성이 크며, 상호문화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기반 상호문화 교육 모델의 발전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ARI 및 ARIMV 프로젝트를 다양한 문화권의 교육 환경에 적용하여 보편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 전문가 대상 온라인 연수 과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상호작용형 교육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상호문화 교육을 위한 디지털 자료 개발 및 교사 연수의 표준화된 모델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호문화 교육이 학습자 및 교육 전문가의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문화 역량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디지털 상호문화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교육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3). 미래 교육현장 변화에 대응한 교원역량혁신 방향 모색. 보도자료.
 로즈마리 샤브·리오넬 파비에·스와직 펠리시에 공저. 서영지 역(2019). 알기 쉬운
 교실 상호문화교육. 북코리아.
- 박정미(2023). 한국 다문화문화를 활용한 다문화담론의 이해와 교육의 실제, <다문화
 사회와 교육연구> 14, 1-34쪽.
- 신용식(2024). 현상학적 사회학의 눈으로 본 다문화-알프레드 슈츠의 생활세계 담론
 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18, 163-189쪽.
- 장이나(2009). 유럽공통 참조기준(CECR)에 나타난 프랑스의 다문화주의, <외대논집>
 35, 167-182쪽.
- 정갑영·정상철·박경신(2004). 문화다양성 국제협약 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
 책연구원.
- 황미혜(2021). 미국의 소수자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기초한 다문화사회 상
 호간 역차별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9, 121-
 144쪽.
- CEFISEM de Grenoble(1981). "L'éducation interculturelle", *Migrants formation*
 45, juin. pp.14-16.
- Collin, Simon(2016). "Le numérique en éducation : au-delà de l'impact",
Diversité 185, pp.137-141.
- Coste, Daniel(1997). "Compétences et valeurs éduquer pour l'europe de
 demain", *ÉLA*(revue de didactologie des langues-cultures) 106,
 pp.133-140.
- Galisson, Robert(1997). "Problématique de l'éducation et de la communication

- interculturelles en milieu scolaire européen”, *ÉLA*(revue de didactologie des langues-cultures) 106, pp.141-160.
- Hirschsprung, Nathalie(2005). *Apprendre et enseigner avec le multimédia*, Hachette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 Lemaire, Eva(2012). “Approches inter, trans, pluri, multiculturelles en didactique des langues et des cultures”, *Revue internationale d’études canadiennes* Numéro 45, pp.205-218.
- Luissier, Denise(1997). “Domaine de référence pour l’évaluation de la compétence culturelle en langues”, *ÉLA*(revue de didactologie des langues-cultures) 106, pp.231-234.
- Migrants-Formation(1981). “L’interculturalisme et la formation des enseignants”. *Migrants formation* 45 juin, pp.20-27.
- Moirand, Sophie(1994). “Des traces de didacticité dans les discours des médias”, *Le français dans le monde recherches et applications* juillet 1994, pp.20-34.
- Porcher, Louis(1994). “L’instant et l’histoire”, *Le français dans le monde recherches et applications* juillet 1994, pp.188-192.
- Puren, Christian(1988). *Histoire des méthodologies de l’enseignement des langues*, Nathan CLE international.
- Rivieccio, Paola(2017). “Valoriser la relation dans l’apprentissage des langues”, *Diversité* 187, pp.109-114.
- Tozzi, Michel(2012). “La discussion à visée philosophique : former à l’interculturel”, *Diversité* n°168, pp.167-172.
- Yael, Ohana(2000). “Europe : l’éducation interculturelle en transition ?”, *Agora débats/jeunesses* 22, pp.35-47.
- Yaiche, Francis(2002). *Photos-Expressions*, Hachette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 <https://www.coe.int/fr/web/portal/the-council-of-europe-at-a-glance>
- <https://www.coe.int/fr/web/autobiography-intercultural-encounters/home>
- <https://eur-lex.europa.eu/FR/legal-content/summary/european-year-of-intercultural-dialogue-2008.html#:~:text=Par%20cette%20d%C3%A9cision%2C%20l%27ann%C3%A9e,Ann%C3%A9e%20europ%C3%A9enne%20du%20dialogue%20interculturel.>
- <https://www.coe.int/fr/web/education/26th-session-of-the-standing-conference-of-ministers-of-education>
- <https://www.coe.int/fr/web/autobiography-intercultural-encounters/online-self-study-course-for-educators>

필자 소개

성 명 장니나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길 65 [우편번호] 46234

전자우편 jazzinred@naver.com

Abstract

Digital Intercultural Education in France - An Analysis of the ARI and ARIMV Projects -

Chang, Ni-na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nalyzes intercultural education models utilizing digital resources, focusing on the ARI and ARIMV projects implemented in France. The ARI project encourages learners to create digital autobiographies reflecting their cultural experiences, while the ARIMV project enhances interaction through visual media and digital networks. By examining their conceptual background, educational objectives, and impact in digital environments, this study explores their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Additionally, it discusses the development of digital-based intercultural education, including ARI via Internet and online training for educators, highlighting its sustainability and future implications for intercultural competence development.

[Key words] Intercultural education, ARI project, ARIMV project, digital interaction, intercultural competence,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France's intercultural education policy

투고일 2025. 02. 10 / 심사일 2025. 03. 12. / 게재확정일 2025. 03. 19

